

이재명 “운동장 넓게 쓰겠다”…원팀 선대위 구성 박차

경선 경쟁 박용진·김두관 회동

“팀 플레이로 반드시 승리하자”

일산 킨텍스 로봇산업전 찾아

경제공약 ‘전환적 공정성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김두관 의원과 원팀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냈다. 박 의원은 공동 선대위원장장을 맡기로 했고, 김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이 후보와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이번 대선 레이스를 추격에 빚대며 팀플레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축구하고 정치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우주최강 스타플레이어를 모아 놓고도 최약체 팀에 지기도 하고 그런다”며 “그 때 보면 꼭 스타플레이어들이 개인플레이 해서 경기를 망친다. 그래서 팀플레이를 잘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경선을 같이했던 후보들과 힘을 잘 모아서 팀플레이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말씀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며 “인사도 정책도 그렇고, 넓게 넓게 크게 가야 한다. 우물도 넓게 파야 한다. 좁게 파면 금방 한계가 온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미력이나마 저도 힘을 보태고 사회통합 정도 공약에 더 기여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열심히 하고, 특히 청년들과 미래 의제와 에너지가 후보 중심으로 잘 모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차담 형식의 회동을 가졌다. 이 후보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은 “두 분이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김 의원은 또한 부울경 지역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본인이 직접 백방으로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내년 선거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사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청하자, 김 의원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단계”라고 화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후보는 이로써 모든 경선 경쟁주자들과 일대일 회동을 마쳤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약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각종 로봇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둘러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경제성장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부각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산업 전환, 신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연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되, 불합리한 약육강식이 사라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행정 영역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반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공 가능성이 작아 기업들이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영역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회 인프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 두 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두관 의원실을 방문, 김 의원(왼쪽 두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에 정부의 대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기초과학·첨단기술 투자, 규제 합리화가 정부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홍준표·윤석열에 5%P·7%P 앞서

4개기관 대선 양자대결 조사

리얼미터 조사는 오차범위 점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게 오차범위 안팎에서 각각 뒤처진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28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35명을 대상으로 양자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홍준표 의원이 44.4%의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후보(38.9%)에 5.5%포인트 우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5.3%로, 이 후보(40.9%)에 오차범위 이내인 4.4%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43.8%로 이 후보(40.1%)를 3.7%포인트 앞섰다.

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0.0%의 지지율로 유 전 의원(36.1%)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다만, 4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근소한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 이 후보가 34.6%로 윤 전 총장(34.4%)에 초박빙 우위

를 보였고, 심 후보 4.4%, 안 대표 4.0% 순이었다. 홍 의원과의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34.3%, 홍 의원이 29.3%, 안 대표가 5.7%, 심 후보가 5.1%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의 4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모두 우위를 점했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일 경우 이 후보는 34%의 지지율로 홍 의원(29%)을 5%포인트 앞섰다. 안 대표와 심 후보는 각각 9%, 7%였다. 윤 전 총장과의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35%)가 윤 전 총장(28%)을 7%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안 대표는 8%, 심 후보는 6%였다.

이 후보는 각각 35%의 지지율로 원 전 지사(21%), 유 전 의원(15%)과의 4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 의원 25%, 윤 전 총장 20%, 유 전 의원 13%, 원 전 지사 4%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유럽 순방길…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만남

교황 방북 관련 언급 나올지 주목

내달 5일까지 영국·헝가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위해 28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이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이 중요한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교황의 방북 관련 언급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교황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했으나 아직 방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황 면담을 통해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세스를 진전시킬 실마리를 찾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과 같은 날 교황을 면담할 예정인 만큼, 한미 정

상 간의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대북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등을 위한 공조 방안을 주요국 정장과 논의한다.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마치면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다음 달 1일과 2일에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다. 문 대통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다음 달 5일 귀국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www.gaok.or.kr

지방자치 스위치 ON!

중앙-지방

협력의 시대가 열린다!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 싸움 틈을 틔우는 씨앗처럼
30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키워갑니다.

지방자치의 날은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여 2012년 제정되었습니다.